

중생의 '이고득락' 위해 論을 적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마하연에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이 있으므로 이를 논술하겠다.”

귀명계에 이어 본문의 시작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논하는 내용을 전개해 간다. 한마디로 기신론은 마하연의 믿음의 뿌리(信根)를 일으키게 하는 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논(論)이란 원래 삼장 가운데 논장(論藏: Abhidharma pitaka)을 줄여하는 말로 부처님이 설한 경전의 뜻을 보충 설명하면서 법의 행상을 밝혀 놓은 것이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을 논술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바로 알게 하겠다는 것이 논주의 본뜻이다.

마하연은 범어 'maha-yana'를 음사한 말인데 대승(大乘)의 어원이다. 이 '마하야나'의 이치 대승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신론이 저술된 것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깨닫고 또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설한 법, 곧 참된 이치를 다르마(達磨: dharma)라고 한다. 불교의 어원도 '붓다 다르마(Buddha

dharma)'이다. 어원에 충실하게 번역하려면 불법이 더 정확하지만 통상적인 종교의 한 이름으로 불교(佛敎)라고 해 온 것이다.

범어 'dharma'의 본뜻은 '존재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 '질서를 지켜지게 하는 것'이라 한다. 초기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

부처님 참된 이치 '다르마'

법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대승 불교의 근본 가르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범은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범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법이라 한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이 법이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의 누앙스를 풍기는 말이 되었다. 물론 부처님의 교법이라 할 때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

하나가 모두 법이라고 할 때의 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상위 개념으로서 총체적인 법인데, 범어로 표기할 때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Dharma'로 적는다. 후자는 하위개념으로서 낱말의 개념들을 나타내는 법인데 소문자를 써서 'dharma'로 표기하여 양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어떻든 법이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 전부를 포함하는 범주를 가지고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상(對象), 사물(事物), 실재(實在), 또는 개념(概念) 등의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을 소승에서는 오위(五位) 75법, 대승에서는 오위(五位) 100법으로 구분하여 말하는 행상(行相)이 있다. 오위란 색법(色法), 심법(心法), 심소법(心所法), 불상응법(不相應法), 무위법(無爲法)의 다섯을 말한다. 또 인과법, 인연법, 일심법 등의 말을 쓰면서 법문의 내용과 그 성질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이란 법의 본성 곧 법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궁구하는 것이 대승의 근본교의이다. 이 법을 얻었을 때 열반에 들었다 혹은 해탈을 이루었다고 한다. 기신론에서는 진여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인연분>에서는 기신론을 짓게 된 인연 8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이유로 논주 마명의 겸손하고 진정어린 뜻이 나타

난다.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여의고 더없는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명예를 얻거나 이익을 구하고 남으로부터 공경을 받기 위하여 논을 짓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불교는 고(苦)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다. 인생과 세상을 괴롭고 괴로운 곳이라는 관점을 세워놓고 이 괴로움을 직시하고 이를 여탈 수 있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길을 가자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여래의 근본 뜻을 해석해서 중생들이 바르게 알아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셋째는 선군이 성숙한 중생들에게 대승의 법을 감당하여 믿음이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넷째는 선군이 미미한 중생들에게는 신심을 닦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라 했다. 다섯 번째는 나쁜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보여 마음을 잘 단속하여 어리석음과 아만을 제거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지관(止觀)을 닦는 법을 보여 범부들과 이승들이 가지는 마음의 허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라 하였다. 일곱 번째는 염불하는 방법을 보여 신심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덟 번째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法布施에 대해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를 근본 덕목으로 생활화해야 한다.

첫째가 보시(布施)이다. 보시란 배 풀고 나누며 일깨워주고 마음을 함께 함을 의미한다. 매듭을 풀고 주고 굶은 곳을 파주며 두려움을 덜어주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도, 배고픈 자에게 먹거리를 나누는 것도 보시지만 험덱이 흥들리는 자에게 개운하고 거뜬하게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보시이다. 앞부분이 재보시(財布施)라면 후자는 법보시(法布施)일 테니까.

그렇다면 생산적인 일을 하며 노동의 댓가로 거둬들인 수확물을 나누는 행위가 재가자(在家者)의 몫이라면 정신수행을 생활의 덕목으로 하여 경전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일깨워주는 것이 출가자

스님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는 경우는 적을 수도 있을 터.

돈을 모아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부양가족이 있는 재가자로서는 목마른 의무이자 생존의 법칙일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런데 아내 자식이 없는, 부양가족이 없는 그것도 부모형제도 마다하고 출가(出家)한 스님들이 돈을 챙겨 모으고 노후 대비하며 비상금을 쌓아둔다면 이것은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넉넉하지도 못한 부끄러운 작태일 게 분명하다.

버리고 비우는 개운한 삶이 모든 스님들의 생활의 덕목이 되어야 한다. 마치 승려가 주지 직이 직업이라든가 되는 듯이 모으고 챙기는 속물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이름만 스님이지 스님이 아니다.

생각의 윤회에서 험덱이 흥들리는 부끄러운 몸짓들이다. 입으로는 행위가 재가자(在家者)의 몫이라면 정신수행을 생활의 덕목으로 하여 경전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일깨워주는 것이 출가자

버리고 비우는 삶이 수행자 생활 덕목 신도 財보시에 이제 法보시로 회향해야

(出家者)의 의무일터이다. 물론, 마음 중심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엔 재가자와 출가자가 둘이 아닌 하나요, 차별이나 선입견이 따라다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시는 나누어 셋이 되고 열이 될 수 있으나 근본으로 돌아가면 셋이 하나요, 열이 하나일터. 다만 어떤 보시든 주는 자 우월하고 받는 자 열등하다면, 생각의 윤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열 열린 행위일 것이 분명하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구절처럼 생각의 머물 행위를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라면 머물과 집착이 없는 열린 행위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 할 것이다.

자, 이쯤에서 출가수행승들의 나눔 문화에 대해 조명해보도록 하자. 청빈과 무소유(無所有)를 생활화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개운한 삶을 이어나가는 스님들이 많을 터이다. 그러긴 하나, 스님들은 대가가 주는 쪽보다

주는 쪽에 서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는 쪽엔 인색하고 받는 쪽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신도들 주머니가 비어있는 경우는 많으나

중생일 따름이다. 몇해 전 지리산 실상사에서 아담법석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때에 알게 된 일이지만 초청법회에 자주 나가는 스님들의 한 달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었다.

법회에 초청될 정도라면 그 스님은 학덕(學德)과 수행력이 탄탄한 앞서가는 스님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이 있기까지 크고 작은 신도들의 재보시(財布施) 속에서 지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개운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법보시(法布施)할 차례가 온 것이다. 법회 후 주최 측에서 내미는 대가성 봉투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법회 전에 미리 주최 측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법보시 법문임을 알려야 한다.

지리산 아담법석의 공개된 자리에서 초청법회가 한번이면 10번이든 30번 이상이든 동봉투를 받지 않겠다는 법보시 선언을 하게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조계종단에서는,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첫째 보시라는 덕목에서 실천 부재를 느껴야 하는 지 깊은 통찰과 반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산영이 깊다.

타고난 변재로 외도 굴복시킨 論師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② 제바라보살은 누구인가

提婆羅菩薩造(제바라보살조)

번역 제바라보살이 지었다.

해설

본 논서 <대장부론>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권 14품과 하권 15품으로 총 29품이 연결되어 있어 구분되지 않는다. 상권과 하권이 따로 나뉘어 실렸다. 또한,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바라보살'이라고 하는 인물은 딱히 경·율·논을 통해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제바라보살이 곧 제바보살이라고 통상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대장부론>이 용수보살의 중관학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았

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이 한역한 <제바보살전>에 전해지는데, 첫 문장을 해석하면 '제바보살이라는 사람은 남천축인이다. 용수보살의 제자이며 바라문 출신이다. 박식하며 깊이 섭렵하였다. 변재가 뛰어난 자

저서 <백론>, 삼대 논서 중 하나
자신 짜른 외도 제자 용서하기도

할 이가 없었다(提婆菩薩者南天竺人 龍樹菩薩弟子婆羅門種也 博識淵覽 才辯絕倫) 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대로 제바(提婆)는 2~3세기경 남인도 출신의 중관학파(中觀學派)

논사(論師)이다.

용수보살의 제자로 많은 기행(奇行)과 일화가 있다. 범어로 '아리아테마'. 한역하면 '성천(聖天)', 곧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이라는 뜻이며, '가나제바(迦那提婆)'라고 한다. 여기서 '가나'는 애꾸눈이란 뜻이다.

제바는 박람회하고 언설이 뛰어났다고 알려졌지만, 역시 천재들이 그러하듯 때를 못 만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본디 천재가 때를 못 만나면 범인(凡人)만도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언젠가 제바보살이 우연히 대자재천(大自在天)의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자재천이 눈을 함약하게 굴리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

이에 제바는 대감하며 '영험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고 하찮은 눈동자를 굴러 현혹시키려 하느냐'면서 신상의 눈을 빼버렸다. 아마도 이날 제바의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죄

없는 대자재천이 당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대자재천에게 참배를 했다. 그러자 대자재천이 자신의 눈을 돌려 달라고 했다. 이에 제바는 자신의 눈을 뽑아 주었다. 그러자 대자재천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때부터 제바는 가나제바(迦那提婆) 즉 '애꾸눈 제바'가 되었다고 한다.

제바는 이후에 타고난 변재(變才)로서 많은 외도(外道)들을 교화시켜 나갔다. 그러다보니 적도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외도의 제자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제바의 그릇이 나타난다. 오히려 자신을 찌른 외도의 제자를 용서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제바의 유명한 저서로는 <백론(百論)>이 있다. <백론>은 용수의 <중론(中論)>, <십이문론(十二門論)>과 더불어 삼론(三論)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아울러 <광백론(廣百論)>, <백자론(百字論)>, <대장부론(大丈夫論)>, <외도소승열반경(外道小乘涅槃經)> 등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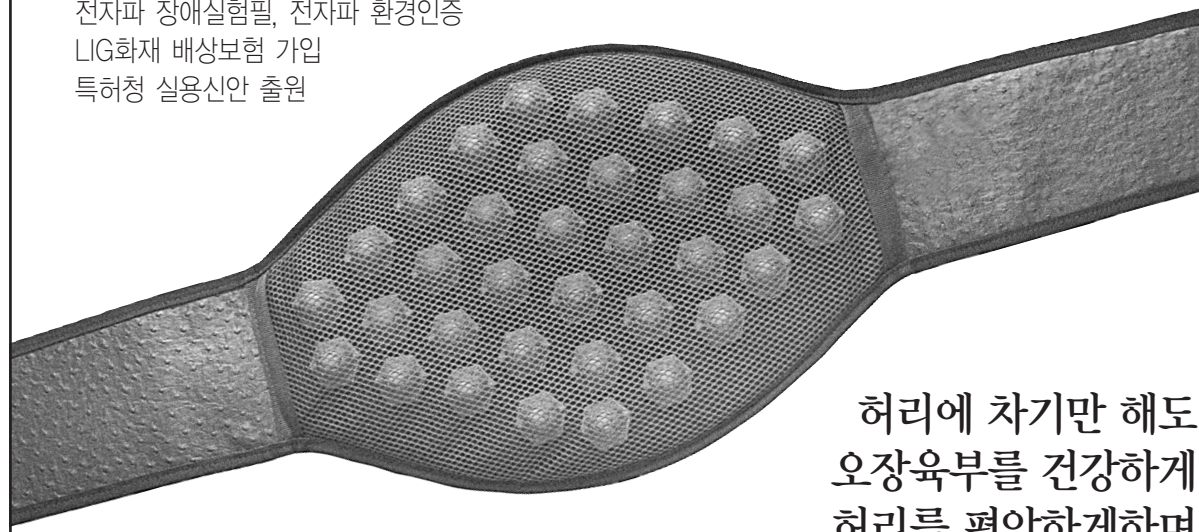
온열복대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택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속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뜸(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